

초·중등 교사 3060명 감축 예고 “과밀학급·교육 질 저하 우려” 반발

행안부, 교원 감축 관련 개정안 입법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감축 추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조정해야
고교학점제 시행에 교사 증원 필요

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사를 3060명 감원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과밀학급 규모가 여전히 높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교사 수를 줄일 경우 교육 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이 감축된다.

당초 초·중·고교원 정원 감축 인원은 초등 2424명과 중등 2443명을 합쳐 4867명이었지만,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500명)과 학교 설립·폐교 등 과밀학습 해소를 위한 교사(1307명) 등 총 18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면서 실제 올해 감축 규모는 4867명에서 1807명을 뺀 3060명이 됐다.

조정분을 반영하면, 올해 초·중·고교원 과 중등교원 정원은 각각 14만 4146명, 13만 6329명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2025~2031)’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02만 1845명에서 내년 484만 4655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세



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사를 3060명 감원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투이미지

가 지속되면서 ▲2027년 467만 1904명 ▲2028년 450만 2811명 ▲2029년 429만 7808명 ▲2030년 407만 7296명으로 줄다가 ▲2031년엔 383만 5632명으로 4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원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지만, 이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정원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도 교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lhj@metroseoul.co.kr

만기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 공급

서울시, 내년부터 연간 4000호 예정

서울시는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장기 전세 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불리는 공공임대 주택인 장기 전세 주택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것으로, 오는 2027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시는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 내 집을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리 내 집은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자가를 마련할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이다.

출산 혜택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입주한 뒤 3자녀 이상 가구가 되면 거주 3년 차부터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입주 이후 2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다.

또 해당 가구는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를 얻게 된다. 종전에는 20년 거주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던 집을 매수할 수 있었다.

시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 연간 4000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하남시, “‘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용해요”

미사·하남풍산 등 4개 역사 확대
“경기도민 불편 덜고, 교통복지 향상”

지하철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에서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기후동행카드로 하차만 할 수 있었던 하남 지역 4개 역사에서 승차도 가능해졌다.

이날 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누적 충전 756만건, 활성화 카드 수 70만장, 일평균 사용자 수 60만명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기후교통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하남시와의 협약으로 서울시와 연담화된 경기도 지방자치단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6일 오전 하남시청에서 열린 서울시-하남시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체 대부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생활권 인접 지자체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경기도민의 불편의 덜고, 교통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마음건강도 교육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 체결
고위험군 학생, 치료·가족상담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회장 서완석)와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 진행된다.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제안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상담 및 치료 연계 ▲고위험 학생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기 학생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

갈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위기학생을 심층 평가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와 가족상담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치료 후에는 학교 복귀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와 전문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방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학생 친화적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손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상담 접근 문턱을 낮췄다.

/이현정 기자 lhj@

파주시 “마을버스 하루 동안 무료 운행”

매년 2월 11일 ‘대중교통의 날’ 지정

파주시는 매년 2월 11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며, 교통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오는 11일에는 파주시 관내 모든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파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선포 및 파주형 급행 시내버스(PBRT) 개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교통안전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파주시 교통 혁신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파주시는 「파주시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월 11일 하루 동안 파주시 모든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첫차부터 막차까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마을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해해선 파주 연장 확정과 지티엑스(GTX) 개통을 계기로 경기 북부의 교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버스노선 전면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확대, 푹버스·천원택시 확대 운영 등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파주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호선 연장, 통일로선, KTX 문산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H 노선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서울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파주시를 경기 북부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중교통의 날 선포를 계기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교통 혁명은 미래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며,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